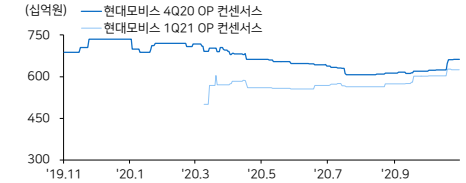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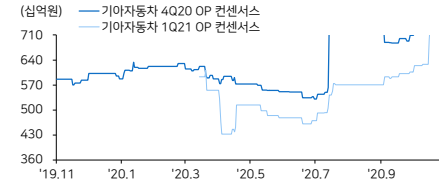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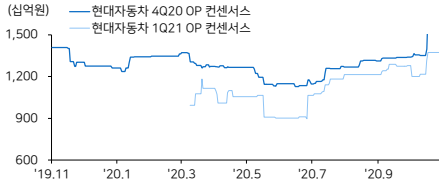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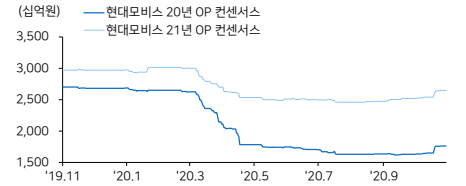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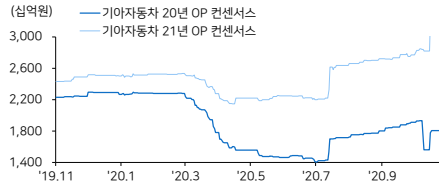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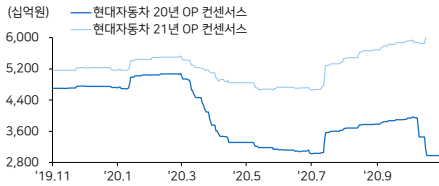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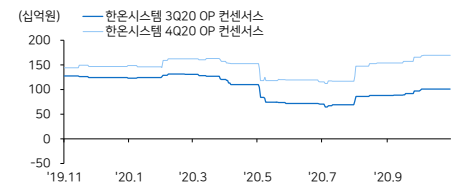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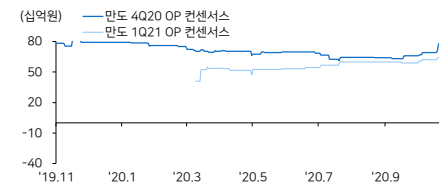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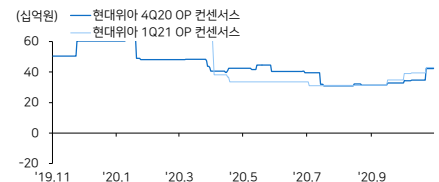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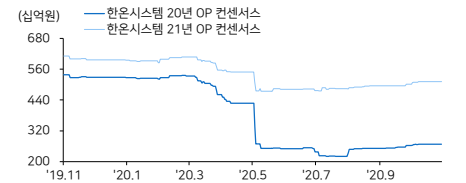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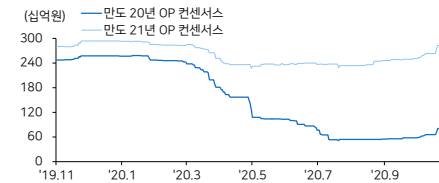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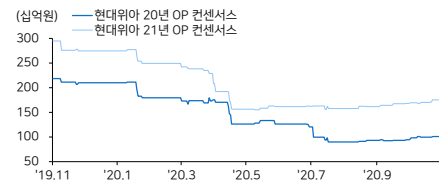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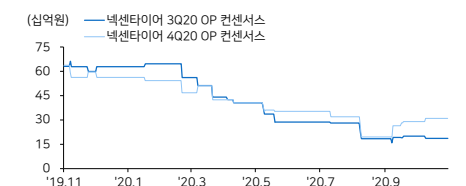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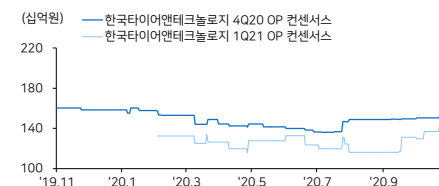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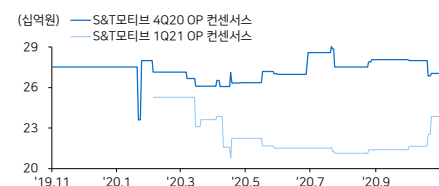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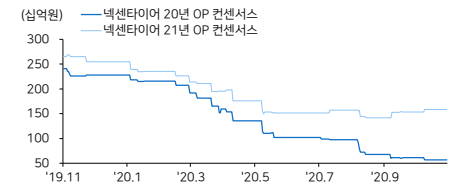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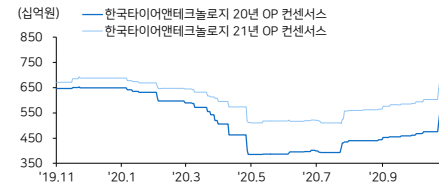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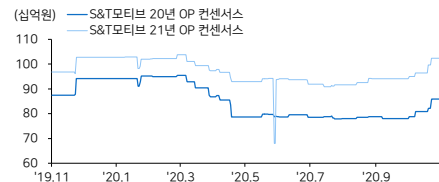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기아자동차 사명 바뀌나... '기아'로 변경 검토 (파이낸셜뉴스)

기아차가 '기아'로의 사명변경을 검토중. 기아차는 현재 사명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떼고 '기아'로 사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짐. 기아차 노조 역시 회사측에서 사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https://bit.ly/2luOE8>

현대차, 내년 첫 픽업트럭 싼타크루즈 출시 (조선비즈)

현대자동차가 첫 픽업트럭 모델 싼타크루즈를 내년 미국에서 출시한다고 발표. 싼타크루즈는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투싼과 상당수 부품을 공유.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투싼을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발표.
<https://bit.ly/36vFE5>

현대차, 상용차 복합 거점 '엑시언트 스페이스 제주' 개소 (디지털타임스)

현대차는 제주도에 상용차 판매와 정비 등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상용차 복합 거점 '엑시언트 스페이스 제주'를 개소. 엑시언트 스페이스 제주는 현대차가 작년 5월에 개소한 '엑시언트 스페이스 아산'에 이은 여섯 번째 현대 상용차 복합 거점.
<https://bit.ly/3ng3gX9>

기아나오는 중국차, 저가 공세 안 먹히자 등남야행? (머니S)

'짝퉁'과 '안전하지 못한 차' 낙인은 중국 자동차를 따라다니는 꼬리표. 그동안 중국차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기에 문제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음.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최근 해외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짐.
<https://bit.ly/3kucqgK>

현대차, 미국 친환경경차 라인업 재정비...2022년 10종 완성 (아시아경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시장 친환경경차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손질. 미국 내 인기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으로 제품군을 재정비해 현재 7종인 친환경경차 라인업을 2022년 10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
<https://bit.ly/3ppVdM>

현대차, 싱가포르 충전사업자와 손잡고 등남아 전기차생태계 구축 나선다 (조선비즈)

현대자동차(005380)가 싱가포르 최대 충전사업자와 손잡고 등남아시아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BaaS·Battery as a Service) 사업 발판 마련에 나섬.
<https://bit.ly/2UmZvH>

배터리 이어 전기차 타이어드 폰다...고속 질주하는 'K-타이어' (한경비즈니스)

전기차 시대를 맞아 타이어 '빅3'가 전기차 전용 고성능 타이어로 돌파구를 찾고 있음. 타이어 3사는 코로나19 여파와 내수 부진 등 이중고에 시달리며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낸 가운데 전기차용 고성능 타이어 신시장 개척에 시동을 걸고 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mid=sec&sid1=101&aid=050&aid=0000055625>

쌍용차 명호, 인도 중앙은행 불승인...코리올린 '마힌드라' (컨슈머타임스)

인도 중앙은행이 자체의 규제·규정 등에 따라 마힌드라의 감자 및 지분양도 방식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쌍용자동차의 운명을 건 마힌드라가 사면초가에 빠짐.
<https://bit.ly/2UoVZrD>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